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2월 17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 인천수산물 지원센터	담당 자	• 수산물안전관리팀장 김율민 ☎458-7451 • 담 당 자 최정인 ☎458-7453 • 담 당 자 윤재호 ☎458-7455		
사 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수산물기술지원센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본격가동
- 소비자에게 유해한 수산물 시중 유통 사전차단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수산물기술지원센터가 정부로부터 안전성 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수산물 출하 전 단계(양식장, 위판장 등)의 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분석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- 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최근 몇 년 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분석장비 및 실험물품 47종, 115대를 구축하고 관내 양식장과 위·공판장의 주요 생산 품목을 위주로 바지락 등 55종을 선정하여 125건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-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3종(수은, 납, 카드뮴), 방사능 2종(요오드, 세슘), 항생물질(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29종), 금지물질(말라카이트그린 등 3종), 유기물질 1종, 미생물 2종, 기타물질 2종 등 총 42항목을 조사·분석할 예정이다.
- 특히,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논란에 따라 방사능 정밀분석 장비를

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.

- 조명노 인천시 수산물기술지원센터장은 “계절 및 수온에 따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마비성 독소, 패류독소, 장염 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붙임 참고사진 1부.

〈수산물 안전성 조사(방사능 잔류량 분석) 참고사진〉

